



대관령에서 방목하는 한우들(위)과 조선시대 소고기를 즐겨 먹었던 양반 사대부가의 모습.

# 소고기는 언제, 어떻게 식욕의 대상이 됐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 소고기 맛에 빠지다**

김동진 지음

“니밥에 괴기국”이란 말은 20세기를 살던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머니와 할머니들에게는 가슴을 아리게 했다. ‘니밥’이란 쌀밥을 가리키는 것이고, ‘괴기국’이란 소고기로 끓인 국을 말한다. 매일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 없었다. 할 수 있다면 죽은 조상들을 위해 바치는 제사음식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빠뜨리지 않으려 했다. 이처럼 20세기 한국인 대다수에게 ‘니밥에 괴기국’이란 살아서 마음껏 먹을 수 없고, 홀로 먹을 수 없던 음식이었다.”

한국의 정서에 있어 쌀밥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이었다. ‘니밥’에 ‘괴기국’으로 상징되는 쌀밥과 소고기는 집착의 대상이었다. 소고기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음식이다. 비단 오늘날의 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당대에도 소는 부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신성의 대상이면서 가장 선호하는 탐식의 대상이었다. 한국인의 식탁을 점령한 소와 소고기 탐식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견됐다.

조선시대 소는 부와 권력의 대상이자 신성의 대상  
제사·잔치때 소 잡아... 연간 5000~1만마리 도축  
한국인 식탁 점령한 소와 소고기 탐식의 역사 조명

서울대 BK부교수를 지냈던 김동진 박사가 펴낸 ‘조선, 소고기 맛에 빠지다’는 조선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삶에 개입한 소와 소고기의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연간 도살하는 소의 수는 몇 마리나 됐을까. ‘세조실록’ 권36에는 “근년에 외방에는 우축을 도살한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고, 서울 안에는 하루에 소를 사는 것이 수십 마리를 넘는데 모두 도살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연간 도살하는 수는 5000마리에서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정도 소고기 수요를 충당하려면 대략 1만5000마리에서 3만 마리의 소를 길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많은 소를 잡아먹었을까. 당연히 양반 사대부가였다. 잔치를 열 때 언제나 소고기를 먹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소 잡기를 닭 잡듯이 한다”는 비문이 곧잘 등장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저자는 “조선시대 소고기 열풍은 요즘으로 치면 친한 친구를 만나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라는 말을 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한다. 왕과 왕족들도 소고기를 즐겨 먹었고 그로 인해 왕실 제사에는 늘 소고기가 올라왔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도 소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많이 못 먹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종7년(425) 실록에 따르면 “귀신에게 제사하고, 또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거나 먹기 위해 끊임없이

소를 잡는데, 1년 동안 잡은 소가 수천 마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제삿날뿐 아니라 설,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소를 잡아 소고기를 즐겼다. 영조 51년(1775)에는 명절에도 도축한 소만 해도 2만에서 3만 마리에 이른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책에는 소고기의 효능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수록돼 있다. 조선 중기 편찬된 ‘식료찬요’(食療纂要)에는 “소고기를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기운을 북돋우며, 비위를 기르고, 골수를 재울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편으로 소는 구형식품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흥년이 들면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소까지도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더러 식량인 소고기는 화폐처럼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다고 한다.

책에는 소고기의 다양한 요리법도 수록돼 있어 정보적 가치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다비드 그로스만 지음·김진식 옮김 '나의 칼이 되어 줘'**

2017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영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말 한 마리가 숲집에 들어왔다’.

그로스만은 아모스 오즈와 함께 현대 히브리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거장이다. 소설과 희곡, 논픽션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집필했던 그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가디언’지는 그로스만을 가리켜 “국가적 갈등 상황이라는 외출 위에서 끝없이 비틀며 중심을 잡으려는 줄타기 곡예사”라고 평했다. 그만큼 그로스만은 힘과 정의의 균형이 위태로운 이스라엘 현실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그로스만의 대표작 ‘나의 칼이 되어 줘’는 이미 스쳐지나갔다고 여겨던 남녀의 이야기다. 사랑, 책망, 불안, 자책, 연남 등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들이 편지를 사이에 두고 붓물처럼 쏟아진다. 특히 책에는 고뇌하는 카프카의 영혼이 드리워져 있다. 소설은 자기 바깥의 삶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을 조명한다. 사람들 간이 거리에 전착했던 작가는 그동안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아내, 연인 사이를 갈라놓는 친밀함의 한계에 전착해왔다.

작가는 묻는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상처받지 않는 거리가 존재할까. 또한 그만큼의 거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까. 작가는 “글을 통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상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널드 R. 브로디 외 지음 '인류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

만유인력, 원자구조, 상대성 이론, 빅뱅, 진화론, 유전법칙, DNA...

최근 인류가 목격하고 경험한 기념비적인 업적과 발견은 지난 400년 동안 기초적인 과학 발견의 결과물이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발견이 있어 인류사는 진보해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현시대는 문명과 인간이라는 층에 있어서 중요한 교차로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우리의 운명은 과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생존 문제라 할 만큼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패 세로 생물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 아널드 R.브로디와 미국 과학자가 협회 회원인 변호사 데이비드 E. 브로디가 펴낸 ‘인류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은 역사를 움직인 7가지 과학 발견을 조명한다. 다시 말해 저자들은 역사를 움직인 7가지 과학으로 세상을 꿰뚫어본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없었다면 금성에 착륙한 탐사선이나 허블 망원경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전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부족한 식량 공급량과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또한 DNA 분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파킨슨병이나 혈우병 등의 치료법도 개발될 수 있었다.

저자들은 “이 책이 모든 사람의 이해 영역 안으로 과학을 들여놓기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과 개념, 기설 등을 스스로 비판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담출판·2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음 '디지털이 꿈꾸는 미래'**

ICT(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은 기술 특성상 다른 분야보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ICT는 인간과 디지털 기기, 물리적 환경을 융합해 더욱 진보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디지털이 꿈꾸는 미래’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ICT 기술전쟁을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연구하고 있는 ‘SW·콘텐츠, 초연결 통신, 방송 미디어, 소재 부품, 5G 기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기술총서이기도 하다.

과학문화 확산과 출판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ETRI 성과홍보실이 펴낸 이 책을 통해 미래 지능정보 사회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ETRI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혁명의 꽃을 피우려 하는지 알리고자 한다. 이 책은 최근 3년 안에 개발된 연구 소재와 ICT 트렌드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를 50개 항목으로 풀어냈다.

1부는 SW·콘텐츠와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2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촘촘히 연결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3부는 꿈의 방송, 초실감 미디어 분야를 담았다. 인간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새로운 방송 기술과 미래 미디어에 대해 살펴본다. 4부는 ICT 소재 부문을 대해 알아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5부는 5G 기기서비스 부문을 기술했다. 모바일 통신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5G 통신에 대해 자세히 풀어냈다.

<콘텐츠하트·1만8000원>

/ 전문기자 ejf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